

전통민속마을 방문의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주 양동민속마을을 대상으로 -

강영은 · 양병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Satisfaction by Visitors' pull factors and push factors - Focusing on Yangdong Ethnic Village in Kyeong-Ju -

Kang, Young Eun · Yang, Byeong 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push, pull motiva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who visited Yangdong village in order to maintain, conserve and seek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is villag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was that ‘personal relations’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nvironment’ and ‘amenities’, ‘the pursuit of knowledge’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nvironment’ and ‘amenit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isit motivation and the visit satisfaction. Secondly, ‘the pursuit of knowledge’ and ‘the desire to new experience’ have positive impact on the visit satisfaction on a part of the push factor generally. Physical environment was a only factor tha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visit satisfaction on a part of the pull factors. Thirdly, the intention of recommendation was a only factor to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visit satisfacti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return visit, recommendation and the visit satisfaction. It was proved that the intention of return visit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recommendation. This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t pull and push factor to enhance the tourist attraction of Yangdong village. It will be helpful to make the preliminary data for planning and conservation guidance of traditional village.

Key words : traditional village, Yangdong village, pull factor, push factor, the visit motivation, the visit satisfaction

1. 서 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특한 지역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발굴, 복원, 전승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고 있다(한혜숙, 2002). 문화관광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공간을 자원화하여 도시민들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연으로의 회귀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관광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

소는 전통민속마을을 꼽을 수 있다.

전통민속마을은 오랫동안 시대변화의 동요됨이 없이 마을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반촌과 민촌을 포함한 정주단위의 지역 집단으로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마을들을 포함하는 개념(강동진, 2001)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전통민속마을은 7개¹⁾로서, 총 83개의 문화제가 산재²⁾해 있고, 지구로 지정되어 면단위로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전통민속마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전통민속마을 자체가 문화유산 또는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보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했기 때문에 전통민속마을의 보전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연구

Corresponding author : Kang, Young-Eun

Tel : 02-880-4886

E-mail : aoi2@hanmail.net

가 주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민속마을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목적지로서 그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민속마을을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전통민속마을에 대한 인식 체계를 통해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전통민속마을을 해석하고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시각에서 공간 체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와 높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전통민속마을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방향뿐만 아니라 보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전통민속마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전통민속마을의 추진 요인(방문 동기)³⁾ 및 유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기존 전통마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양균욱(2002)은 전통민속마을 중 양동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민속마을 방문객의 관광동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광동기가 방문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광행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통민속마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마을의 경관, 건축 등 물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와 마을의 구성원 및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본 사회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민속마을의 공간을 다룬 물리적 측면의 연구는 주로 건축, 도시, 조경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마을 및 건축물의 체계와 구조, 배치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사회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 심리학, 관광학 등의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전통문화마을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동기, 행태분석, 관광지로서의 활용방안 모색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물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로서 여경옥(2002)은 전통민속마을 중 낙안읍성의 보존 현황 및 주거생활 공간 변형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화재 법령을 통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허용 또는 규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전순희(2005)는 중요민속자료 및 사적으로 지정된 6개의 전통민속마을의 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하여 각 공간구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절충된 연구로서 이순하(2007)는 전통민속마을 중 왕곡마을이 가옥과 가옥 공

간구조의 변화과정과 마을주민들의 생활 변화상을 분석하였고, 전통민속마을로 변화된 공간구조와 축제가 마을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을 다룬 연구로서 양균욱(2002)은 전통민속마을 중 양동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객의 방문 동기를 분석하고 방문객의 관광행태와 인구통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관광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고, 손대원(2007)은 문화재 지정 이후 민속마을 주거생활의 변화상을 규명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이 현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해 거주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정석(2009)은 전통민속마을의 보존현황을 분석하여 유무형적인 요소를 분류하고,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민속마을의 보존대상 범위와 보존방법을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민속마을의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의 항목이 만족도 항목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전통민속마을 이용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통민속마을의 개선 방향 제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관광 만족도 요인 연구

본 연구는 전통민속마을의 방문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이에 대한 관련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방문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임연진 등(2002)은 산악형 국립공원인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내장산, 경주산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들 항목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분위기’ 항목과 ‘역사문화자원’의 항목이 전체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승엽 등(2006)은 춘천국제마임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축제의 매력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축제의 ‘특이성/독특함’, ‘먹거리’, 축제의 ‘안전’, ‘청결/쾌적성’, ‘교통편’의 항목이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재명과 최정자(2007)는 경주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Herzberg의 two factor이론을 이용하여 경주의 만족요소와 불만족요소를 규명하고, 만족요소와 불만족요소가 전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하였다.

윤설민 등(2008)은 북악산 서울성곽을 대상지로 관광객의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

악하였다. 연구 결과, 추진 요인 중 ‘탈일상성’항목과 유인 요인의 ‘자연·역사문화자원’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Kim et al(2002)은 국립공원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관계성을 연구하였으며, 피조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각 유인 요인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요인 분석으로 구분된 각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의 상관관계가 대부분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특히 ‘주요한 관광 자원’과 ‘가족 친목 및 교육’의 관계와 ‘주요한 관광 자원’과 ‘자연 자원 감상과 건강’의 관계가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Devesa et al(2010)은 농촌 관광에 있어서 방문자의 동기(추진 요인)와 방문자 만족(유인 요인)간의 관계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농촌 관광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방문지에 따른 인구의 특성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이 각기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민속마을 방문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추진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유인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전통민속마을 계획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대표적 전통민속마을 중의 하나인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 및 항목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상호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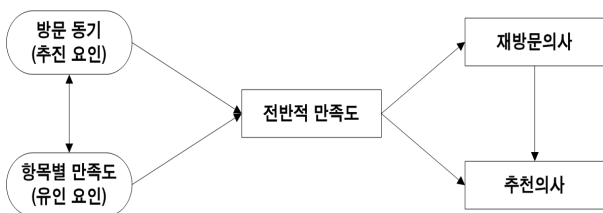


Figure 1 연구 모형.

첫 번째 가설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과 방문 만족도 항목 간에는 상호 영향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이다. 따라서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작용하는 추진 요인을 조사하고, 양동민속마을 방문 시 발생하는 항목별 만족도(유인 요인)를 조

사하였으며, 두 항목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은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로서,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과 양동민속마을 방문 시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두 항목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가설은 “양동민속마을의 유인 요인은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로서, 양동민속마을의 유인 요인과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두 항목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네 번째 가설은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는 재방문의사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로서,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와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사를 조사하여, 두 항목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다섯 번째 가설은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는 추천의사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로서, 양동민속마을의 전반적 만족도와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사를 조사하여, 두 항목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여섯 번째 가설은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사는 추천의사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로서,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를 조사하여, 두 항목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양동민속마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응답토록 하는 설문조사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양동민속마을의 방문을 추진하게 하는 방문 동기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진 요인’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당 장소를 방문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본질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양동민속마을의 유인 요인은 ‘Pull Factor’에서 기인되어 생성된 용어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 방문 시 충분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유인 요소로서, 물리적인 환경(Setting)이 그 본질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예시로는 건축물, 편의시설, 공간 구조, 주차장 등을 들 수 있다.

만족도는 특정 대상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즉 전반적 만족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이용후평가(POE; Post of Evaluation)라고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만족도의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대상지 자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항목과 나아가 다시 동일 장소를 방문할 것인지를 평가하게 하는 재방문 의사,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도를 평가하게 하는 추천의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설문조사 항목 작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 항목, 양동민속마을 방문 시 유인 요인 항목, 만족도에 대한 항목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동민속마을 추진 요인 항목, 유인 요인 항목, 만족도 항목은 선행 연구들에 적용된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 항목을 나열하여 빈도수가 높게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최종 설문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항목 선

Table 1 선행 연구의 추진 요인 항목 분석

추진 요인 항목	(1)	(2)	(3)	(4)	(5)	(6)	(7)	(8)	합계
• 지식 추구/지적 호기심	●	●			●	●		●	5
• 지역 고유의 문화 경험	●	●			●	●	●		5
• 민속문화예술 공연 체험 욕구/교육	●					●	●	●	4
• 문화 행사 경험	●	●			●		●		4
• 새로운 것 경험	●	●			●		●	●	5
• 추억 만들기				●		●			2
• 창조적 활동/성취감			●					●	2
• 역사문화적 장소 경험	●	●							2
• 모험심 추구	●							●	2
• 신비감 추구	●								1
• 독특한/이색적인 체험	●	●	●			●	●		5
• 관광경험 발산 욕구					●	●			2
• 사회적 위상 향상			●			●			2
• 호기심 추구	●	●	●	●					4
• 자연경관 감상/자연과 접촉			●		●			●	3
• 건강 증진			●						1
• 특별한 이벤트 체험	●								1
• 흥미 추구	●		●	●			●		4
• 주변 사람들의 권유	●		●						2
• 가족과의 친목 및 화합	●	●	●	●		●			5
• 가족들의 욕구		●							1
•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기		●	●			●			3
• 일상생활에서 탈피	●	●	●	●	●	●		●	7
• 휴식시간을 가지기 위함/머무는 편안함				●	●	●	●	●	5
• 일상생활의 리듬 변화/기분 전환	●	●		●	●	●			5
• 무료함 달래기	●	●				●			3
• 자기 성찰의 시간 추구								●	1
• 자유롭게 행동						●			1
• 스트레스 해소	●	●	●	●	●		●	●	7
• 삶의 재충전			●	●	●		●		4
•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					●	●			2
• 동반자들과 함께 체험/친목도모	●	●	●	●	●	●			6
• 많은 사람들 구경 욕구						●			1
• 새로운 사람과 어울릴 기회	●	●			●	●		●	5
• 단체와 함께 체험	●			●					2
• 기념품 구입							●		1

註: (1) 이충기와 이태희(2000), (2) 양근옥(2002), (3) 장경수 등(2004), (4) 한상일(2004), (5) 윤철민 등(2008), (6) 김영석(2010), (7) 이덕원과 서광열(2011), (8) 강성일과 이계희(2011)

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진 요인들의 항목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의 추진 요인들은 ‘지식 추구/지적 호기심’, ‘지역 고유의 문화경험’, ‘새로운 것 경험’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대표하는 상위 분류는 ‘문화경험성’, ‘사교성’, ‘가족친화성’, ‘일탈성’, ‘특이성’, ‘사회적 관계/과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1). 유인 요인들의 항목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의 유인 요인들은 ‘행사/장소의 감동’, ‘신명성’, ‘몰입’, ‘지역 특색’, ‘문화 경험’, ‘서비스’, ‘태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대표하는 유인 요인의 상위 분류는 문화자원, 교통 및 접근, 기타 지역자원, 교육/경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2). 유인 항목의 경우는 선행 연구를 통한 빈도수 분석과 함께 1차 현장조사 시 파악한 물리적 환경 및 대상 자원들을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만족도 항목의 경우는 방문대상지에서 느끼는 ‘전반적 만족도’

Table 2 선행 연구의 유인 요인 항목 분석

유인 요인 항목	(1)	(2)	(3)	합계
• 행사/장소의 감동	●			1
• 행사/축제의 신명성	●			1
• 행사/장소에 몰입	●	●		2
• 삶의 긴장과 지루함 해소	●			1
• 문화 경험/체험	●	●	●	3
• 지역 특색		●		1
• 지역문화 관심 증대	●			1
• 다양한 문화 정보	●		●	2
• 프로그램과 공연	●			1
• 교육적 도움	●	●		2
• 문화에 대한 이해	●			1
• 안내/정보 제공	●	●		2
• 안내요원의 친절성/서비스	●	●		2
• 지역주민 태도		●		1
• 휴식공간	●			1
• 부대/숙박시설	●	●		2
• 신비감	●			1
• 호기심			●	1
• 교통편			●	1
• 접근성	●	●	●	3
• 경험하지 못한 문화 접촉	●			1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프로그램	●	●	●	3
• 청결/쾌적성		●		1
• 문화/장소/행사의 독특함/특이성	●	●	●	3
• 쇼핑		●	●	2
• 다양한 토산품, 공예품	●	●	●	3
• 문화적 매력 풍부	●			1
• 문화/장소/행사의 재미	●	●		2
• 주변 아름다운 경관	●	●		2
• 먹거리	●	●	●	3
• 물가/비용		●		1
• 안전		●		1
• 새로운 사람과 만남의 기회	●	●		2
• 친지 방문			●	1

註: (1) 한상일(2004), (2) 한승엽 등(2006), (3) 김영석(2010)

및 이의 과급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방문 의사’, ‘추천 의사’ 등의 항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선행 연구의 만족도 항목 분석

	(1)	(2)	(3)	(4)	합계
• 전반적 만족도	●	●	●	●	4
• 즐거운 시간				●	1
• 현명한 선택				●	1
• 재방문 의사	●		●	●	3
• 추천의사	●	●	●	●	4

註: (1) 임주연(2002), (2) 이은미(2004), (3) 장경수 등(2004), (4) 장경수(2005)

Table 4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 최종 항목

분류	설문 항목	척도
추진 요인	1)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 점 리 커 드 척 도
	2) 스트레스 해소/긴장완화를 위해서	
	3) 삶의 재충전/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4) 기분전환을 위해서	
	5) 정신적/육체적 휴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6)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고자	
	7) 동반자와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8) 동반자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9) 다른 사람이 안 가본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10) 관광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려고	
	11) 역사/문화적 자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12) 새롭고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13)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14)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5)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인 요인	1) 주거환경(가옥의 형태, 면적 등)	5 점 리 커 드 척 도
	2) 마을의 공간 구성(마을의 배치 등)	
	3) 자연환경(산림, 수계, 농경지, 숲 등)	
	4) 편의시설(매점, 화장실 등)	
	5) 휴식공간(쉼터, 정자 등)	
	6) 기반시설의 정비(도로, 주차장, 시설물 등)	
	7) 접근성	
	8) 전통자원의 보존/관리 상태	
	9) 먹거리	
	10) 관광 서비스(정보 알림, 안내, 친절도 등)	
	11) 관람/탐방 프로그램	
	12) 지역특색(고유성, 독특성 등)	
만 족 도	1) 양동민속마을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	
	2)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도	
	3) 양동민속마을의 추천의사	

상기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 항목, 유인 요인 항목, 만족도 항목은 각각 15개 문항, 12개 문항, 3개 문항으로서 이의 30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적용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였다(Table 4).

설문조사 시 일반적 사항에 대한 항목은 성별, 동반자 수, 연령, 양동민속마을 방문 경험, 직업, 주소의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설문대상자의 전반적인 경향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설문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의 시기는 2010년 5월 17일, 5월 23일, 5월 29일로서, 총 3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 장소는 양동민속마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주출입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 작성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으로 설문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20세 이상의 남녀로 한정하였으며,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성별의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수행하여 전체 설문대상자 중 남자 49%, 여자 51%의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배부한 300부 중 242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한 설문지 분석 시 이상치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92부가 유효부수로 인정되어 결과 분석에 반영되었다.

최종적 유효부수로 인정된 설문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항목(인구 통계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항목의 빈도, 평균을 파악하였으며, 추진 요인, 유인 요인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과 함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 항목의 상호 연관성 분석은 피어슨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의 영향력 파악은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별, 연령, 동반자 수, 방문경험, 직업, 주소의 6가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

며, 성별은 남자 94명(49%), 여자 98명(51%)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연령은 20~29세인 20대가 86명(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의 경우도 46명(2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반자 수는 2~3명을 동반한 관광객이 73명(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명 이상을 동반한 관광객이 65명(3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0명 이상을 동반한 관광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 유형이 단체방문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양동민속마을의 방문 경험은 처음 방문했다는 관광객이 73명(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2회 방문한 관광객의 수도 65명(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학생이 81명(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이트칼라(사무직)와 전업주부도 각각 33명(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광객의 자택 주소는 서울 및 경기도권이 86명(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접한 곳에서 방문한 충청도의 경우도 62명(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설문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n=192)

분류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94	49%
	여자	98	51%
연령	20-29세	86	45%
	30-39세	46	24%
	40-49세	22	11%
	50-59세	23	12%
동반자 수	60세 이상	15	8%
	혼자	6	3%
	2-3명	73	38%
	4-6명	38	20%
	7-9명	10	5%
방문 경험	10명 이상	65	34%
	처음 방문	73	38%
	1-2회	65	34%
	3-5회	40	21%
	6-9회	8	4%
직업	10회 이상	6	3%
	자영업	21	11%
	블루칼라(노동직)	17	9%
	화이트칼라(사무직)	33	17%
	전업주부	33	17%
	학생	81	42%
	없음	6	3%
주소	기타	2	1%
	서울/경기도	86	45%
	충청도	62	32%
	경상도	21	11%
	전라도	13	7%
강원도	10	5%	

2. 변수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추진 요인 항목과 유인 요인 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Cronbach's α)

분류	변수	M	S.D	신뢰계수(α)	
				항목 제거	전체
추진 요인	1)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88	1.09	0.76	0.78
	2) 스트레스 해소/긴장완화를 위해서	2.88	1.02	0.76	
	3) 삶의 재충전/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2.86	1.03	0.76	
	4) 기분전환을 위해서	3.36	1.06	0.76	
	5) 정신적/육체적 휴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2.96	1.08	0.76	
	6)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고자	2.98	1.50	0.79	
	7) 동반자와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3.40	1.18	0.78	
	8) 동반자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38	1.05	0.77	
	9) 다른 사람이 안 가본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2.80	1.05	0.78	
	10) 관광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려고	2.13	0.95	0.78	
	11) 역사/문화적 자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3.86	0.95	0.79	
	12) 새롭고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3.30	1.09	0.77	
	13)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3.46	0.95	0.76	
	14)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11	1.06	0.76	
	15)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3.50	1.02	0.76	
유인 요인	1) 주거환경(가옥의 형태, 면적 등)	3.84	0.89	0.69	0.69
	2) 마을의 공간 구성(마을의 배치 등)	3.82	0.96	0.68	
	3) 자연환경(산림, 수계, 농경지, 숲 등)	4.21	0.69	0.70	
	4) 편의시설(매점, 화장실 등)	2.40	0.86	0.69	
	5) 휴식공간(쉼터, 정자 등)	2.34	0.96	0.68	
	6) 기반시설의 정비(도로, 주차장, 시설물 등)	2.59	0.95	0.64	
	7) 접근성	2.57	0.91	0.68	
	8) 전통자원의 보존/관리 상태	3.71	0.87	0.64	
	9) 먹거리	2.21	0.91	0.64	
	10) 관광 서비스(정보 알람, 안내, 친절도 등)	2.79	0.91	0.67	
	11) 관람/탐방 프로그램	2.51	0.80	0.65	
	12) 지역특색(고유성, 독특성 등)	3.80	0.97	0.69	
만족도	1) 양동민속마을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	3.56	0.67	0.68	0.77
	2)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희망	3.53	0.94	0.77	
	3) 양동민속마을의 추천의사	3.77	0.80	0.59	

註: 리커트 척도(5점 척도: 1=매우 그렇지 않다, 3=보통, 5=매우 그렇다)

양동민속마을 추진 요인에 관한 15개 항목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의 항목이 평균값 3.8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의 항목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의 항목이 각각

3.50, 3.46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추진 요인에 관한 15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 α 값이 0.78로 나타났고, 15개 항목별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5개 항목 전부가 실증 분석에 반영되었다.

양동민속마을 유인 요인에 관한 12개 항목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연환경(산림, 수계, 농경지, 숲)’의 항목이 평균값 4.2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주거환경(가옥의 형태, 면적 등)’의 항목과 ‘마을의 공간 구성(마을의 배치 등)’의 항목이 각각 3.84, 3.82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유인 요인에 관한 12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전체 신뢰도 계수 α 값이 0.69로 나타났고, 12개 항목별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2개 항목 전부가 실증 분석에 반영되었다.

양동민속마을의 만족도에 관한 3가지 항목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양동민속마을 추천의사의 평균값이 3.7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의사 값도 각각 3.56, 3.53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다. 만족도에 관한 3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 α 값이 0.77로 나타났고, 3개 항목별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개 항목 전부가 실증 분석에 반영되었다.

3.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요인분석

추진 요인에 해당하는 15가지 항목들이 유사한 항목들끼리 분류되게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방법 중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이 1.0 이상인 허용사를 취하고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적합도(KMO) 값은 .68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2 의 값은 286.356 ($p=.000$)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추진 요인의 항목은 15개의 항목에서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62.425%로 나타났다(Table 7).⁴⁾

분류된 4개의 요인은 변수의 특성 및 내용에 의하여 요인명이 명명되었다. 요인 1은 ‘탈일상성($M=3.07$)’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7.282%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2는 ‘지식추구($M=3.02$)’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5.651%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3은 ‘대인관계형성($M=3.39$)’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2.414%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4는 ‘새로운 경험($M=3.02$)’으로 7.078%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유인 요인에 해당하는 12가지 항목들은 추진 요인의 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추진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공통 분산비
	I	II	III	IV	
<i>Factor 1: 탈일상성($M=3.07, S.D=0.80$)</i>					
1) 일상생활 벗어나기	.803	-.127	.094	-.079	.677
2) 스트레스 해소	.845	-.031	.131	.004	.732
3) 삶의 재충전	.855	.030	-.043	-.112	.747
4) 기분전환	.719	-.040	-.011	.236	.575
5) 정신적/육체적휴식시간	.716	.168	.003	.134	.559
13)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	.585	.219	.118	.202	.665
<i>Factor 2: 지식추구($M=3.02, S.D=0.70$)</i>					
15) 새로운 것 경험	.342	.731	-.007	.102	.857
14) 지적 호기심 충족	.176	.726	.182	.214	.820
10) 관광경험 타인에게	-.061	.703	.084	.013	.438
11) 역사/문화자원 경험	-1.89	.657	.004	.032	.506
<i>Factor 3: 대인관계형성($M=3.39, S.D=1.05$)</i>					
7) 동반자와 친목도모	.050	.093	.917	.076	.469
8) 동반자와 즐거운시간	.139	.156	.881	-.008	.652
<i>Factor 4: 새로운경험($M=3.02, S.D=0.70$)</i>					
6) 새로운 사람과 어울릴 기회	.071	-.092	.410	.695	.445
9) 다른사람이 안가본 곳 경험	.006	.182	-.048	.634	.636
12) 새롭고 다른 생활양식 경험	.328	.365	-.349	.538	.662
고유값 (분산설명력)	4.167 (27.282)	2.348 (15.651)	1.862 (12.414)	1.062 (7.078)	-

註:KMO = .6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X^2=286.536, p=.000$)

분석 결과, 전체 표본적합도(KMO) 값은 .60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2 의 값은 120.299 ($p=.000$)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방문 요인의 항목은 12개의 항목에서 5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69.445%로 나타났다(Table 8).

분류된 5개의 요인은 변수의 특성 및 내용에 의하여 요인명이 명명되었다. 요인 1은 ‘기반 환경($M=2.77$)’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915%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2는 ‘물리적 환경($M=3.84$)’로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7.450%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3은 ‘서비스 환경($M=2.65$)’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11.721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4는 ‘지역 환경(M=4.01)’으로 10.974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5는 ‘편의 환경(M=2.38)’으로 8.385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8 유인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공통 분산비
	I	II	III	IV	V	
<i>Factor 1: 기반 환경(M=2.77, S.D=0.64)</i>						
6) 기반시설의 정비	.544	-.288	.192	.411	.345	.704
7) 접근성	.775	-.116	.008	-.184	.063	.652
8) 전통자원의 보존	.640	.298	.027	.361	-.211	.674
9) 먹거리	.665	.059	.322	-.309	.310	.741
<i>Factor 2: 물리적 환경(Setting M=3.84, S.D=0.80)</i>						
1) 주거환경	.103	.773	-.002	.087	-.101	.625
2) 마을의 공간 구성	-.088	.867	.025	.033	.154	.785
<i>Factor 3: 서비스 환경(M=2.65, S.D=0.73)</i>						
10) 관광서비스	-.015	-.024	.820	.010	.230	.726
11) 탐방/프로그램	.256	.071	.769	.229	-.143	.735
<i>Factor 4: 지역 환경(M=4.01, S.D=0.68)</i>						
3) 자연환경	-.292	.446	.087	.554	-.003	.599
12) 지역특색	-.009	.050	.087	.791	-.068	.641
<i>Factor 5: 편의 환경(M=2.38, S.D=0.70)</i>						
4) 편의시설	-.040	.043	.301	-.203	.755	.706
5) 휴식공간	.379	.017	-.366	.175	.662	.746
고유값 (분산설명력)	2.510 (20.9 15)	2.094 (17.4 50)	1.407 (11.7 21)	1.317 (10.9 74)	1.006 (8.38 5)	-

註: KMO = .6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X^2=120.299$, $p=.000$)

4.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양동민속마을의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인 요인의 대인관계의 항목이 99%의 신뢰수준에서 추진 요인의 지역환경($r=.356$), 편의환경($r=.344$)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함이 도출되었다(Table 9). 또한 유인 요인의 새로운 경험 항목이 99%의 신뢰수준에서 추진 요인의 지역환경($r=.356$), 편의환경($r=.344$)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함이 도출되었다. 유인 요인의 지식추구 항목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추진 요인의 지역환경($r=2.99$), 편의환경($r=.297$)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함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추진 요인의 지역환경과 편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하게 하는 동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Table 9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추진 요인			
		탈일상성	지식추구	대인관계	새로운경험
유인 요인	기반환경	.114	.179	.197	.197
	물리적환경	.067	.011	.056	.056
	서비스환경	.039	.093	.089	.089
	지역환경	.226	.299*	.356**	.356**
	편의환경	.213	.297*	.344**	.344**

註: * $p<0.05$, ** $p<0.01$

5. 추진 요인-유인 요인과 만족도의 영향관계 분석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도록 하는 동기와 양동민속마을 방문 시 경험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이 전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각각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진 요인 4가지를 독립변수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p=0.02$), 설명력(R^2)은 14.5%로 도출되었다(Table 10). 하지만, 추진 요인의 4가지 항목 중 ‘탈일상성’과 ‘대인관계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회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진 요인 항목 중 ‘지식추구($\beta=.237$)’와 ‘새로운경험($\beta=.129$)’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유인 요인 5가지를 독립변수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99%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p=0.001$), 설명력(R^2)은 21.1%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유인 요인의 5가지 항목 중 ‘기반환경’, ‘서비스환경’, ‘지역환경’, ‘편의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회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유인 요인 항목 중 ‘물리적환경($\beta=.399$)’만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진 요인 4가지 항목, 유인 요인 5가지 항목의 총 9가지 항목을 독립변수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99%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p=0.008$), 설명력(R^2)은 34.0%로 도출되었다. 9가지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기반환경’, ‘서비스환경’, ‘지역환경’, ‘편의환경’, ‘탈일상성’, ‘대인관계형성’, ‘새로운경험’은 제외되었고, 추진 요인 중 ‘지식추구($\beta=.306$)’와 유인 항목 중 ‘물리적환경($\beta=.388$)’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처럼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도출된 이유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각 추진 요인 및 유인요인에 대한 개인별 편차가 크거나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변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Table 10 추진 요인-유인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간 회귀분석

추진 요인과-전반적 만족도의 영향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B	SE			
전반적 만족도	(상수)	2.338	.485	-	4.824	.000***
	지식 추구	.272	.169	.297	1.615	.02*
	새로운 경험	.129	.220	.108	.589	.01*
$R^2=.145, F=4.232, p=.020^{\circ}$						
유인 요인과-전반적 만족도의 영향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B	SE			
전반적 만족도	(상수)	2.029	.419	-	4.846	.000***
	물리적 환경	.399	.108	.460	3.697	.001**
$R^2=.211, F=13.668, p=.001^{**}$						
추진 요인/유인 요인과-전반적 만족도의 영향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B	SE			
전반적 만족도	(상수)	1.143	.490	-	2.334	.024*
	물리적 환경	.388	.098	.462	3.971	.000***
	지식 추구	.306	.111	.321	2.759	.008**
$R^2=.340, F=13.668, p=.008^{**}$						

註: *p<.05, **p<.01, ***p<.001

6. 만족도 항목 간 영향관계 분석

양동민속마을의 만족도 항목은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의 3가지 항목으로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Table 11).

우선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p=0.000), 설명력(R²)은 41.9%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재방문의사’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회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천의사 항목(β=.535)’이 전반적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천의사를 종속변수로, 재방문의사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은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p=.000), 설명력(R²)은 28.5%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재방문의사 항목(β=.462)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1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B	SE			
전반적 만족도	(상수)	1.536	.339		4.533	.000***
	추천의사	.536	.088	.648	6.071	.000***
$R^2=.419, F=36.853, p=.000$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B	SE			
추천 의사	(상수)	2.126	.373		5.692	.000***
	재방문의사	.462	.102	.534	4.508	.000***
$R^2=.271, F=20.318, p=.000$						

註: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통민속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존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양동민속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여 해당 목적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진 요인, 유인 요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 요인과 방문 만족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부 항목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도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채택하였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도출된 항목은 대인관계 항목이 지역환경과 편의환경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식추구 항목이 지역환경과 편의환경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전통민속마을 방문 시 발생하는 추진 요인은 ‘지역의 특징적인 분위기’, ‘환경과 편의시설’, ‘휴게공간’과 같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추진 요인에서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동기가 전반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지식추구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유

인 요인에서는 물리적 환경만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9가지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한 결과, 추진 요인의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유인 요인의 물리적 환경의 2가지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동민속마을의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추천의사만이 전반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재방문의사가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재방문의사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이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함의는 특히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게 하는 동기와, 상대적 가중치가 높은 유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느끼는 추진 요인은 휴식을 취하거나, 동반자와 친목도모를 위한 동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도출되는 것으로 볼 때, 양동민속마을 대상지의 독특성, 특이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동민속마을 보전·유지에 있어서는 이의 형태적, 내용적 특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 시 느낄 수 있는 유인 요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을 때, 주거지의 형태, 주거 환경, 공간 구성 등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 및 길 체계, 공간 구성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전통마을 구성요소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마을 주민들의 마을 가꾸기와 청결성 유지에도 힘써야 아름다운 경관 창출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양동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방문하게 되는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양동민속마을의 발전 및 상대적 중요 항목들을 도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동민속마을 이외의 전통민속마을 방문 추진 요인 및 유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목적지로서의 전통민속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존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주1) 전통민속마을 문화재 현황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 전통민속마을 문화재 현황

(2009년 11월 20일 기준)

마을명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천연기념	지방기념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민속자료	지방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월성양동마을	1	4		13			1	2	1		1	23
안동하회마을	2	4	1	10	1	1						19
성읍민속마을				6	1	1		2	1	2		13
고성왕곡마을				1							1	2
아산암의마을				3						1		4
낙안읍성마을			1	9				1			1	12
성주한계마을									6		4	10

*자료: 문화재청 내부 자료

주2)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되어있는 전통민속마을은 경북 월성의 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 189호), 안동의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122호), 제주도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188호),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중요민속자료 235호), 충남 아산군 외암마을(중요민속자료 236호), 전남 승주군 낙안읍성 민속마을(사적 302호), 경북 성주 한계마을(중요민속자료 제255호)이다.

주3) 동기의 개념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movere'에서 파생된 것이며(권태일과 노선희, 2008), 인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변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장경수 등,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통민속마을의 방문 동기는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4) 고유값(eigenvalue)은 해당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일수록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고유값(eigenvalue)에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나눈 값으로 고유값이 높을수록 분산설명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즉 각 요인분석 결과 분산설명력이 높을수록 전체에서 해당 요인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중 농촌경관의 원형 보전 및 복원연구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강성일, 이계희, 2011,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방문동기,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6), 23-40.
2. 권태일, 노선희, 2008, 동굴관광지의 방문동기·관광만족·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6), 151-168.
3. 김영석, 2010, 축제동기의 추요인과 유인요인의 차이 연구,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6(1), 23-44.
4. 변순녀, 최병길, 2007, 관광의 동기, 만족 및 관광지 충성도간의 관계 구조모델, 제주 휴양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 연구, 19(3), 29-48.
5. 심재명, 최정자, 2007, Herzberg의 Two-Factor 이론의 관광지 적용사례 연구: 경주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1), 155-175.
6. 손대원, 2007, 민속마을의 주거생활 제약과 거주자의 대응: 경주 양동마을 문화재 지정 고가옥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양균욱, 2002, 민속마을 관광자원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양동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여경옥, 2002, 낙안민속마을의 주거변형 및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윤설민, 백주아, 김홍렬, 2008, 문화유산 방문객의 추진-유인 요인,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북안산 서울성곽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3(3), 401-423.
10. 윤설민, 송학준, 백주아, 김홍렬, 2010, 북안산 서울성곽 방문객의 문화유산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지, 22(1), 133-150.
11. 이덕원, 서광열, 2011, 횡성 한우축제의 축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참가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20(1), 285-298.
12. 이순하, 2007, “전통민속마을” 만들기 과정과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의 사례,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이은미, 2004,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동기가 관광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합천 촬영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은미, 이계희, 2006, 관광지로서 영화촬영지에서 Push-Pull 동기모형의 유효성, 소비문화연구, 9(2), 187-203.
15. 이충기, 이태희,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축제참가 동기 분석, 관광학연구, 23(2), 84-98.
16. 임연진, 한상열, 이주희, 2002, 산악형 국립공원의 방문객 만족도 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2): 61-67.
17. 임주연, 2002, 문화관광지 속성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장경수, 2005, 축제의 서비스 품질이 방문자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약령시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19(3), 131-145.
19. 장경수, 김형섭, 이귀옥, 2004, 스키리조트의 방문동기, 방문자만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3(1), 29-45.
20. 전순희, 2005, 전통민속마을 공간구조특성 비교분석: 중요민속자료 및 사적 지정 마을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정석, 2009, 민속마을의 가치보존을 위한 환경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한상일, 2004, 축제참여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18(3), 181-196.
23.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2006, 문화관광축제의 매력 IP 분석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춘천국제마임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연구 6(2), 61-79.
24. Devesa, M., Laguna, M., Palacios, A., 2010, The role of motivation in visitor satisfaction: Empirical evidence in rural tourism. *Tourism Management* 31, 549-552.
25. Kim, S., Lee, C., Klenosky, D. B., 2003, The influence of push and pull factors at Korean national parks. *Tourism Management*, 24, 169-180.
26. Klenosky, D. B., 2002, The pull of tourism destinations: A means-end investig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4), 385-395.

접 수 일: (2011년 8월 30일)

수 정 일: (1차: 2011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7일)

■ 3인 익명 심사필